비전개발 6주차

21600685 조예성

사순절 기간이 끝나가고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 주님은 겸손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며 결국은 승리를 이루실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주님의 사역과 생애에서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순절의 훈련과 고난 기간,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겸손과 희생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 가만히 생각해본다. 세상 사는 것은 힘들다고 많이 하는데 어찌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고난이 절대 없을 수가 없다. 주님 그 위대하신 분 또한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필히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구분된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야 하고 고난 끝에 우리의 성공과 희락이 아닌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멋있지 않고 십자가로 비참하게 생이 끝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길을 힘들고 지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수 많은 이들이 있고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있다. 바로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끝에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도 주가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온전히 느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가면서 힘든 게 없었을까. 구약의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러한 시련을 겪으면서 눈물을 수도 없이 흘리지 않았을까.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시련을 버텼을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같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셨다는 것을 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직접 몸으로 보이셨다. 우리는 그 2000년전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 전파 받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지금 복음으로 듣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말씀과 사역에 집중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울퉁불퉁하고 괴롭다. 하지만,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길을 같이 걷고 계신다.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괴로워 하신다. 그 길을 같이 걷는 중이다. 오늘도 나와 같이 걸어주시고 나의 힘 되어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고난 주일, 우리 또한 그가 걸었던 자취를 묵상해야 할 것이다. 주를 바라고, 겸손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의 자취를 좇자.